

우대금리 ‘그림의 떡’...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논란

은행연합회, 사전금리 공개 대부분 기본금리 3.5% 동일 우대금리 더해야 6%대 가능 “은행별 적용 조건 까다로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각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이 공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연 6%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

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서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공개된 청년도약계좌의 1차 사전금리를 살펴보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중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3년 고정 기본금리는 3.5%로 동일하고, 소득 우대금리는 0.5%p로 모두 같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는 1.5~2%p다. 하지만 이 우대금리는 세부 항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기업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연 1.5%p다. 항목은 급여이체 0.5%p, 지로·공과금 0.5%p, 카드이용 0.5%p, 주택청약 신규 0.5%p, 최초거래고객&마케팅동의 0.5%p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금리인 6.5%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2%p로 같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1%p, 자동납부 0.5%p, 거래감사 0.2%p, 혜택수신 0.1%p, 리브모바일 0.2%p를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0.5%p, 신한카드 결제 0.5%p, 첫 거래 0.8%p, 만기축하 0.2%p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급여(가맹점대금)이체 1%p, 하나카드 결제 0.6%p, 목돈응원(1년 이내 예적금 첫 거래) 0.3%p, 마케팅동의 0.1%p다.

우리은행은 당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1%p, 급여이체 1%p, 카드결제 1%p 등이다. 농협은행은 급여실적 1%p, 카드실적 0.5%p,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3%p, 마케팅동

의 0.2%p를 적용한다.

BNK경남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2%p,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은 1.8%p를 제시했다. 광주은행의 최대 우대금리는 1.7%p로, 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을 500만원 이상 채워야 0.8%p를 준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5.5~6.5%가 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각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포함하면 기업은행이 6.5%로 가장 높다. 5대 시중은행은 6%다. 지역은행은 경남 6%, 대구 5.8%, 부산 5.8%, 광주 5.7%, 전북 5.5% 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대부분 까다로워 이를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건 5%의 기업은행뿐으로, 나머지 은행들은 사실상 3.5~4%에 불과하다.

직장인 박모씨는 “낮은 월급에 월세,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적금 붓기에도 빠듯한데 은행의 우대금리를 충족시킬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5년이라는 긴 만기를 채워야 하는 것도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12일 최종 금리 공시 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삼성전자, 중국서 TV·생활가전 신기술 선포 삼성전자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2023 중국 테크 세미나’를 열고 2023년 TV와 생활가전 신기술을 선보였다. 팬데믹 이후 올해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중국 테크 세미나에는 현지 주요 미디어와 거래상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제공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2024 넥쏘’ 출시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연식변경 ‘2024 넥쏘’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신형 넥쏘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기본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에어콘용 습기 건조기인 애프터 블로어를 비롯해 USB C타입 충전기(1열 2개, 2열 2개),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을 장착했다.

색상은 어두운 회색 계열의 ‘아마존 그레이’가 추가됐다. 트림은 기존 모델에서 고객 97%의 선택을 받은 프리미엄 트림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프리미엄 트림에 포함됐던 와이드 선루프 및 루프랙, 19인치 휠·타이어를 선택 사양으로 구성했다.

신형 넥쏘의 가격은 6950만원(세제혜택 적용 후)이다. 올해 서울시 기준 보조금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지자체 10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고객 구매가격은 3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넥쏘는 2018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3만1995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추가 사양을 통해 고



객 편의를 강화하고 고객 선호에 맞게 트림 운영을 조정했다”며 “넥쏘와 함께 상용 부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제 1071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 2 11 21 30 35	3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51억8397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5204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9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산업진흥회, 동남아 광통신 시장 교두보 마련

싱가포르서 580만 달러 수출계약 국내 최신 기술 광통신 제품 선포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동남아시아 광통신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국내 광통신기업 10개사와 함께 동남아시아 거점국인 싱가포르 지역 공략을 위해 지난 7~9일 싱가포르 광통신 전시회(CommunicASIA 2023)에 공동관을 구성·운영해 지원한 결과, 총 580만달러(한화 약 75억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싱가포르 광통신 전시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광통신 및 통신 기술 전시회 중 하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장조립형 광커넥터, 광단면 자동검사 시스템 및 가정용 공

기정정기 등이 해외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주)에이버추얼(대표 김태준)은 가정용 공기정정기 약 500만달러, (주)솔텍(대표 이동화)은 광커넥터 및 드롭케이블 유지보수 솔루션 약 30만달러, (주)탈렌티스(대표 정지영)는 배선용 광케이블 약 5만달러, (주)고려오트론(대표 정휘영)은 45만달러의 광커넥트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싱가포르 광통신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향후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진흥회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광통신, 광 헬스케어, 배터리, AI, 모빌리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일 로데 슈바르츠사 및 싱가포르 전자제품 유통사인 DBR시스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광융합 제품의 우수성도 홍보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굴한 120여명의 유망 바이어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오는 11월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전략적으로 초청해 수출 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철동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은 “그동안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융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지지”

산학연합의회, 공동성명 발표 미래 모빌리티 구축 이행 촉구

광주지역 11개 산학연합의회가 광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지지 및 대통령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광주산학연합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광주의 자동차 산업이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38.8%와 제조업 종사자의 25.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AI, 금융, 가전, 광산



업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산업으로 지역 제조업 종사자들은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광주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 동력이 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

지가 유치됐으나 광주 자동차산업이 지역을 넘어 국가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광주시에서 지난 4월 신청한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과 더불어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할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산학연합의회 소속 200여 회원을 대표해 11대 대표산업 회장단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청한 광주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정부에는 대통령의 공약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중기 전용 대금지급 서비스

‘Trust-On 보증서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대금지급 서비스 ‘KJB Trust-On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KJB Trust-On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의 상호 신뢰하에 기업이 대출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원재료 구매 등 각종 물

품구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다양한 자금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보증료 0.5% 할인혜택까지 주어지는 보증서대출이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용보증기금보증서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약정이 가능하고, 플랫폼 사이트(www.trust-on.co.kr)를 통해 지급 요청 정보를 등록한 후 ‘광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Trust-On

전용 페이지’에서 한도 내 건별로 보증기업이 직접 실행하면 된다.

우대금리는 △당행 여신 신규고객 △KJB Trust-On 보증서대출 외 광주은행 시설자금대출 보유고객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은행이 정한 한도소진율 70% 이상 사용 시 제공되며, 신규 시 최고 0.4%p, 기한연장 시 최고 0.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